

	보도자료	2026. 5. 29.(금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산물원종장장	강태완	☎ 760-7200
		업무담당자	강민서	☎ 760-722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농업기술원, 올해 나물콩 우량종자 84.5톤 보급 완료

- 아람·풍산나물콩, 제주시 70.5톤·서귀포시 14.0톤 공급 완료 -
- 농가 수요 반영한 나물콩 품종 다변화 및 보급 확대 추진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국립종자원과 협력해 2026년도 나물콩 보급종 84.5톤을 도내 농가에 공급 완료했다.
- 이번 종자 보급은 고품질 나물콩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지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,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에 전달됐다.
 - 지역별 공급량은 제주시 70.5톤, 서귀포시 14.0톤이다. 제주시에는 아람 49.0톤과 풍산나물콩 21.5톤이, 서귀포시에는 아람 12.0톤과 풍산나물콩 2.0톤이 각각 배정됐다.
- 현재 제주는 전국 최대의 나물콩 주산지다. 하지만 최근 이상 기후와 재배 환경 변화로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다.
 - 실제로 도내 ‘풍산나물콩’ 생산량은 2024년 875톤에서 2025년 306톤으로 감소했고, ‘아람’ 품종 역시 같은 기간 2,436톤에서 1,906톤으로 줄었다.
 -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수확량이 많고 재배가 안정적인 ‘아람’ 품종에 대한 농가 선호도가 높아지며, 기존 ‘풍산나물콩’ 중심이던 재배 흐름이 점차 바뀌고 있다.
- 농산물원종장은 우량 종자의 안정적인 확보와 적기 공급을 위

해 제주시 상귀리와 봉성리에 채종포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종자 생산 기반을 다지고 있다.

- 올해는 원원종(풍산나물콩·아람) 25a에서 250kg, 원종 365a에서 3,600kg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. 철저한 순도 관리와 건전도 검사를 거쳐 고품질 우량 종자를 생산·공급할 계획이다.

* 증식체계: 기본식물 → 원원종 → 원종 → 보급종

- 이와 함께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화 작업에 적합한 신품종 ‘해찬’ 도입도 새롭게 추진한다.

- 올해 ‘해찬’ 품종의 기본식물을 도입해 원원종 생산을 시작하고, 이를 바탕으로 농가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
- 강민서 농촌지도사는 “농가 수요에 맞춘 우량 종자를 적기에 공급해 이상기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농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” 며 “제주 나물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” 이라고 전했다.